
2019년 2/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9년 2/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0개사

○ **기 간** : 2019년 2월 25일 ~ 2019년 3월 11일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9년도 2/4분기 전망치 및 2019년도 1/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2. 2019년 1/4분기와 2019년 2/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2/4분기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58』로 전분기(45) 대비 13포인트 상승

●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의 악조건 속에 지역 제조업체 BSI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I |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를 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가 전분기인 1/4분기 전망치 『4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8』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훨씬 밑도는 것으로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속에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들의 글로벌 성장세 약화와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및 중공업 관련 제조업체의 경우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의 악조건 속에 실적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경기전망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더 어렵게 전망하고 있으며 BSI격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지역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관련 규제법안,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등의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세제혜택과 각종 기업규제 완화 및 노동유연성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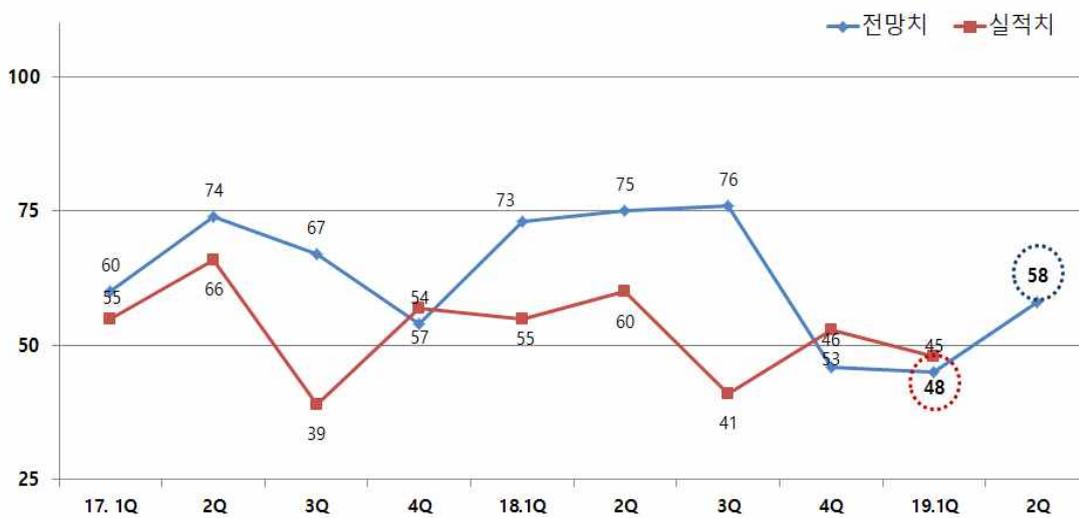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BSI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65	87	68	63	60	74	67	54	73	75	76	46	45	58
실적치	57	73	54	66	55	66	39	57	55	60	41	53	48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9년 1/4분기 실적 대비 2019년 2/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48→58), 내수 매출액 (55→62), 수출 매출액 (64→67), 내수 영업이익 (52→57), 수출 영업이익(57→70), 자금조달여건(45→47) 으로 전반기 대비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19년 1/4분기 실적 대비 '19년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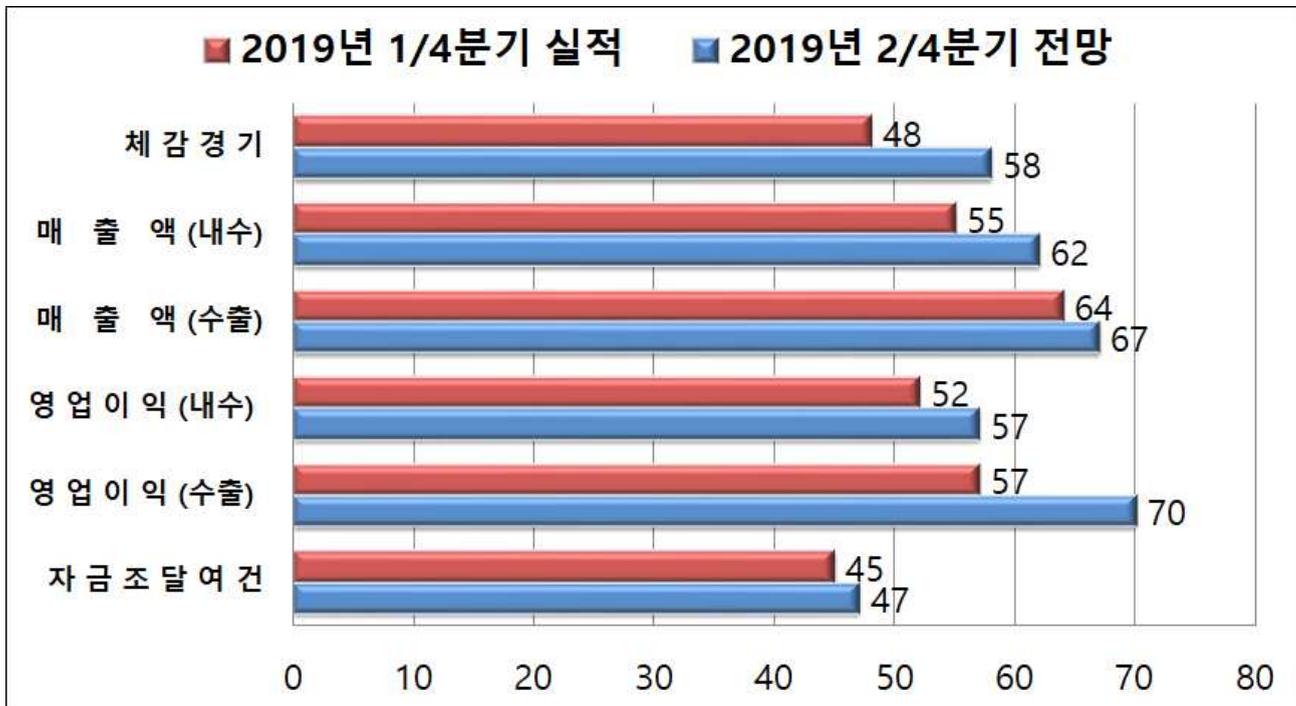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항목	기간		2016				2017				2018				2019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62	87	60	84	38	46	45	45	48	58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58	90	60	80	38	48	57	50	55	62	
		수출	53	46	64	82	62	44	78	50	63	55	62	62	74	60	69	74	76	44	52	60	43	64	67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48	79	60	70	34	30	45	43	52	57	
		수출	53	44	60							45	47	54	66	58	71	46	68	50	52	58	45	57	70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42	54								45	47
설비투자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1 작년 한국경제 성장률 2.7%, 올해 전망치는 2.6~2.7%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응답이 32개 업체(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망치 수준 (24%), 소폭 상회 (8%), 3%대 성장 (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수	백분율
전망치 하회	32	64%
전망치 수준	12	24%
전망치 소폭 상회	4	8%
3%대 성장	2	4%
합 계	50	100%

2 최근 귀사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 다소 어렵다 (68%), 매우 어렵다 (28%)로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 96%를 차지하였으며, 원인으로서는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 감소, 금리 인상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업체수	백분율
다소 어렵다	34	68%
매우 어렵다	14	28%
다소 양호하다	2	4%
매우 양호하다	0	0%
합 계	50	100%

3 올해 2분기 사업(투자) 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 대부분의 응답업체가 보수적 (94%)으로 답하였으며, 6%만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경기 불확실성 증대 (38%),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26%), 자금조달의 어려움 (14%), 기존시장 경쟁 과다 (12%), 신규 투자처 부족 (10%)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수	백분율
보수적	47	94%
공격적	3	6%
합 계	50	100%

(복수응답)

	응답 업체수	백분율
경기 불확실성 증대	19	38%
고용노동환경이 변화	13	26%
자금조달의 어려움	7	14%
기존시장 경쟁 과다	6	12%
신규 투자처 부족	5	10%
합 계	50	100%

4 다음 경제현안 중 현 정부출범 초기와 비교해 가장 진전을 이룬 현안은 무엇입니까?

- 현 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현안과 우리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고용노동 선진화와 혁신기반 재구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응답 업체수	백분율
고용노동 선진화	16	32%
혁신기반 재구축	13	26%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11	22%
인구충격에의 대응	5	10%
교육혁신	3	6%
서비스산업 발전	2	4%
합 계	50	100%

5 우리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응답 업체수	백분율
고용노동 선진화	18	36%
혁신기반 재구축	14	28%
인구총격에의 대응	8	16%
서비스산업 발전	5	10%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4	8%
교육혁신	1	2%
합 계	50	100%

6 기득권 장벽이 규제와 서비스산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제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정부	경제·시민단체	국회	신규사업자	학계	비고
70.3%	18.9%	10.8%	-	-	100%

〈끝〉

이 자료는
2019년 4월 4일 夕刊부터

보도자료

 경주상공회의소

연 락 처 054)741-6601

본 보도자료는 경주상공회의소 인터넷(<http://gyeongju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2/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 ❖ 경주지역 2/4분기 경기전망지수 조사결과, 『58』로 전분기(45) 대비 13포인트 상승
- ❖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의 악조건 속에 지역 제조업체 BSI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가 1/4분기 전망치 『4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58』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훨씬 밑도는 것으로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속에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들의 글로벌 성장세 약화와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노동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및 중공업 관련 제조업체의 경우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수익성 감소 등 삼중고의 악조건 속에 실적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경기전망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더 어렵게 전망하고 있으며 BSI격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어렵다(68%), 매우 어렵다(28%)로 96% 가까이 차지하였

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감소, 금리인상 등 경기 악화 요인과 경기 불확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지역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최저임금 등 고용 노동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관련 규제법안,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등의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세제혜택과 각종 기업규제 완화 및 노동유연성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